



채종범 재활 끝, 잃어버린 1년 되찾는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채종범이 잃어버린 1년을 되찾기 위해 방망이를 다시 들었다.

지난해 시범경기에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해 그라운드를 떠났던 채종범이 시범경기에 출전해 2010시즌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아직 대타로 나와 방망이를 조율하는 정도지만 그라운드에 다시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다. 채종범은 이번 시범경기 3타석에 들어서 2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채종범에게 광주는 '눈물의 땅'이었다. 채종범은 2008년

이성우·김형철과 함께 전병두·김연훈과의 3대2 트레이드로 서른 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SK에서 KIA로 새 동지를 뒀다.

새 출발에 대한 두려움보다 힘들었던 것은 이적생을 보는 팬들의 끈지 않은 시선이었다. 이적 첫 해 성적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70경기에 나와 0.197의 타율로 4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데 그쳤던 채종범은 2009년을 위해 이를 악물었다.

마무리 캠프와 2009 캠프에서 가장 눈길을 끈 선수는

단연 채종범이었다. 그러나 물오른 전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채종범의 2009년은 부상으로 허무하게 무너졌다.

2009년 3월26일 두산 베어스와 시범경기에서 친구 최승환의 깊숙한 외야플라이를 처리하다 무릎 연골 파열 부상을 당했다. 아쉽게 준비했던 1년이 그렇게 사라졌다.

힘든 재활의 순간을 이겨낸 채종범에게 한 경기의 가치는 더욱 몽롱하게 와닿는다.

채종범은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서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했었다"며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다는 게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고 밝혔다.

재활조로 따뜻한 관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했던 채종범은 조심스럽게 시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조금힘은 없다.

채종범은 "지난 2년간 처음이라는 생각에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결과에 연연했었다. 하지만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다"며 "야구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시작이라는 생각보다는 야구 인생의 마지막을 써내려간다는 생각으로 한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야구를 즐기게 됐다"고 말한다.

팀을 떠나 있는 동안 우승의 달콤함을 맛본 후배들은 한층 더 자라났다. 채종범은 더 치열해진 경쟁 앞에 섰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선을 다해 미련없이 야구를 하는 게 채종범의 2010년의 꿈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시범경기서 십자인대 파열 그라운드 떠나 부상 고통 털고 전훈서 부활... 야심차게 시즌 준비

해외파들

미국서... 일본서...

자신만만

박찬호



라이브 피칭 합격투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스프링캠프에서 정규 시즌을 준비 중인 박찬호(37)가 실전 투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 신문 '스타레저'는 10일(한국시각) 인터넷판에서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훈련 중인 박찬호가 타자를 세워 놓고 전력을 다해 던지는 라이브 피칭에 나서 공 35개를 던졌다고 짧막하게 전했다.

박찬호는 원래 9일 던질 예정이었으나 조경 중 엉덩이 쪽 근육통을 호소, 등판을 하루 미뤘다.

박찬호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지라디 양키스 감독은 박찬호를 한 차례 더 라이브 피칭에 내보낸 뒤 시범경기에 중간 계투로 기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추신수



시범경기 1안타 1도루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범경기에서 안타 1개를 뽑아내고 도루도 하나 기록했다.

추신수는 10일(한국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 시범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2타수 1안타를 때렸다.

1회초 첫 타석에서 유격수 플라이로 물러난 추신수는 4회 1사에서 시애틀 선발 제이슨 바르가스와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을 골라냈다. 추신수는 이어진 조니 페달타의 타석 때 2루를 홈쳐 시범경기 첫 도루를 기록했다. 2-2로 맞선 6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만든 추신수는 6회말 수비 때 교체됐다.

클리블랜드는 6회초 루이스 발류에나와 웨스 호지스의 연속 안타로 3점을 뽑아내 6-4로 이겼다. /연합뉴스

임창용



올시즌 목표 "30세이브"

'뺨직구' 임창용(34·야쿠르트 스왈로스)이 일본 무대 통산 100세이브 달성 목표를 밝혔다.

2008년 33세이브를 올린 임창용은 지난해 28세이브를 더했다. 작년엔 세이브 숫자는 줄었지만 평균자책점은 3.00에서 2.05로 좋아졌다. 더욱이 지난 시즌 중반까지 무실점 행진으로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도 얻었다.

'100 고지'까지 남은 세이브 수는 39개.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임창용은 "통산 100세이브는 꼭 달성하고 싶다. 올 시즌 30세이브 이상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시즌 센트럴리그 세이브 1위는 이와세 히토키(주니치)로 41개를 쌓았다. 2위는 나가카와 가쓰히로(히로시마)의 36개. 임창용은 3위에 그쳤지만 '세이브의 짝'은 이와세, 나가카와보다 낫다는 평가를 들었다. /연합뉴스

뽀(?)달린 지성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최근 맨체스터 현지에서 진행된 질레트 퓨전의 광고 촬영 현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청용, 아쉽네

3경기 연속공격포인트 실패... 불탄, 선덜랜드에 0대4 완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이청용(22·불탄 원더러스)이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쌓는 데 실패했고, 팀도 완패를 당했다.

이청용은 10일 오전(한국시각) 영국 선덜랜드 스타디움오브라이트에서 열린 선덜랜드와 2009-2010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다.

지난달 28일 울버햄프턴과 홈 경기(1-0 승)에 이어 지난 7일 웨스트햄과 원정경기(2-1 승)에서 잇달아 도움을 올렸던 이청용은 이날은 아쉽게도 공격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불탄은 대런 벤틀에게 헤트트릭을 허용하며 선덜랜드에 0-4로 졌다. 7승8무14패(승점 29)가 된 불탄은 13위에서 14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반면 최근 정규리그에서 7무7패 뒤 15경기 만에 승전가를 부른 선덜랜드는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7승9무12패(승점 30)가 돼 15위에서 13위로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아스널, 챔스리그 8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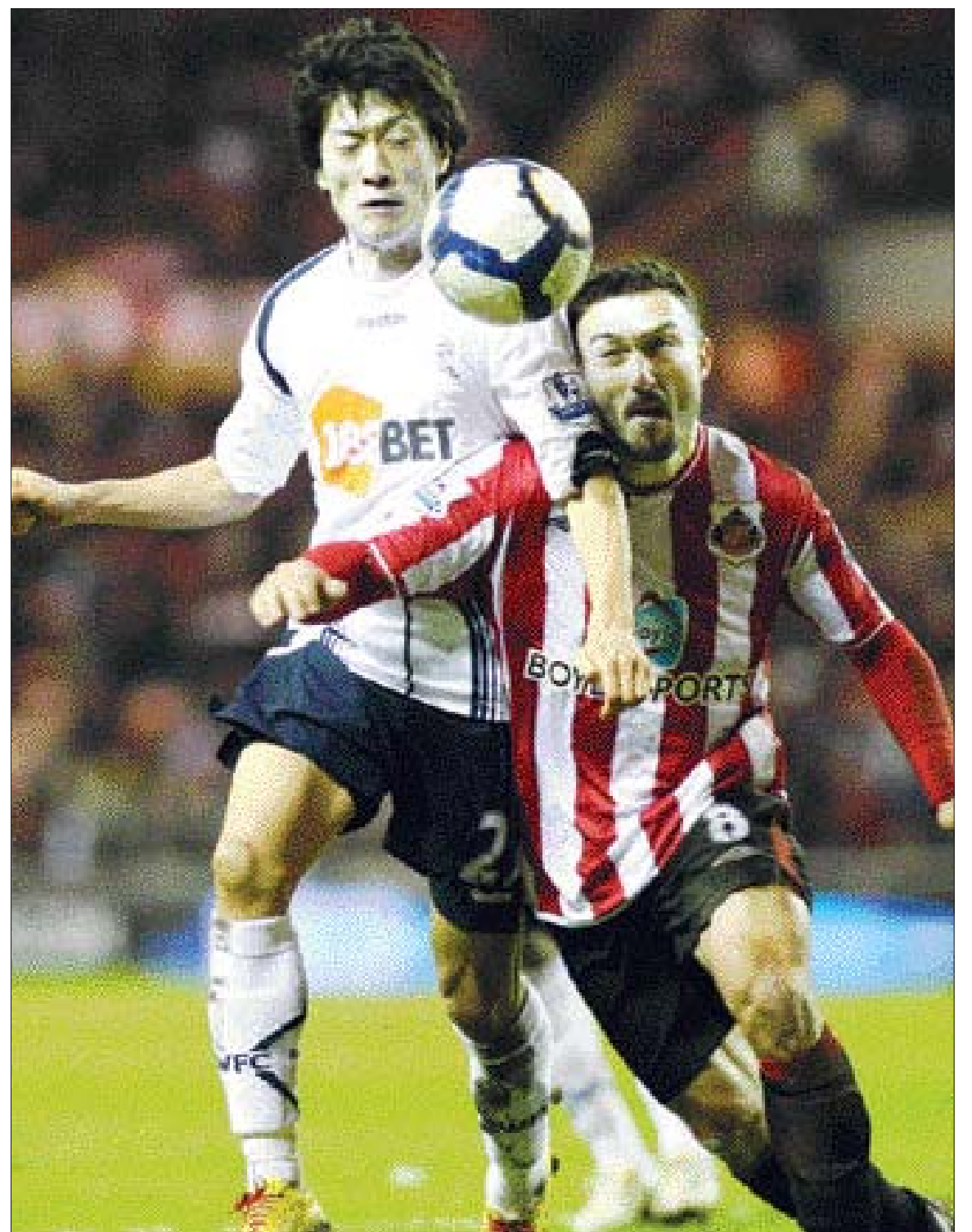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다.

아스널은 10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인 FC포르투(포르투갈)와 홈 경기에서 니콜라스 벤틀너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5-0으로 크게 이겼다. 지난달 원정 1차전에서 1-2로 졌던 아스널은 안방 대승을 발판삼아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덴마크 출신 공격수 벤틀너는 전반 9분과 25분, 후반 45분에 한 골씩 넣어 헤트트릭을 작성하며 대승에 일등공신이 됐다.

아스널은 지난 주말 번리FC와 경기 때 허벅지를 다친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결장했지만 장신 스트라이커 벤틀너를 최전방에 세우고 안드레이 아르샤빈과 토마스 로시기를 좌우 날개로 배치해 초반 공격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에 벤틀너의 두 골로 8강 진출의 희망을 살린 아스널은 후반 18분 사미르 나르시, 21분 에마누엘 에보우에의 연속골이 터지며 포르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피오렌티나(이탈리아)와 원정 경기에서 2-3으로 졌지만 원정 다득점으로 8강에 합류했다. 지난달 홈 경기에서 2-1로 이겼던 뮌헨은 이날 결과까지 더해 4-4로 동률을 이뤘지만 원정에서 두 골을 넣어 극적으로 16강 관문을 통과했다. /연합뉴스



불탄 원더러스의 이청용이 10일(한국시각) 영국 선덜랜드 스타디움오브라이트서 열린 선덜랜드와의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경기에서 스티디 말브린케와 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